

내적치유를 위한 묵상 - 2

- 김형석 목사/ 1994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렘17:14)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내적인 상황과 문제가 근본적으로 죄가 우리의 마음에 미친 영향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어야지 왜 여전히 남아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구원이 능력이 없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래서 구원과 치유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 구원은 보잘 것 없는 것이고, 치유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구원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치유만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구원과 치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경에서는 「구원한다」는 말과 「치유한다」는 말은 많은 경우에 함께 사용되었다. 구원없는 치유가 없고 치유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대부분 자신의 내적인 상황과 문제의 많은 부분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구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구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거지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에게서 거지의 「폐」(거지였을 때의 습관과 사고방식과 생활양식)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수술을 해서 생명을 건졌다고 당장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화와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듯이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적치유는 선포된 구원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그 때에 비로소 구원은 일방적인 선포로서가 아니라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던 상황과 문제가 깊은 부분까지 온전히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9:35~36)

우리가 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아무도 나의 문제와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만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고독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만이 버림을 받고 떨어져 나온 것같은 소외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빛을 싫어하고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사탄이 우리의 상황과 내적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아픔이 있을수록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알기는 알지만 그게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분 앞에 나갈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11장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라는 가사를 매우 좋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마9:12)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픈 사람만큼 답답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쳐 버리고 거들떠보지 않는 병자를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안고 괴로워 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떨어져 나온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연약할 때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

***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5:5~6)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삼십팔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치고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낫고 싶지 않아서 누워있는 병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질문-너무나 당연해서 쓸데없어 보이고 어처구니없는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을 하셨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을 아셨습니다. 오랫동안 비참한 모습으로 물이 동향을 기다리지만 막상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버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아야 하는 이 병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그에게 자신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나같은 불쌍한 병자를 데리고 장난하시는지, 약을 올리시는 건가?』 하는 야속한 생각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라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이 병자에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처지와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그저 팔자러니 운명이러니 생각하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그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도움을 즐깁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병 낫기를 원하는지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상황을 탓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긍휼이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 출처 - 온누리신문 / 1994. 9.11~10.2